

재외동포청, 10개국 한인 정치학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 14일 제28차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서울 총회) 참가 100여명 초청해 리셉션 개최
- 이재명 정부 재외동포 정책 비전 제시 및 네트워킹 강화... '하와이 연가' 관람도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14일 ‘정치학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28차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에 참가한 재외동포 정치학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 2년마다 치러지는 이 대회는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장으로, 한국은 1997년에 이어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2번 유치했다. 현재 세계정치학회 회장은 스페인 공립종합대학교인 발렌시아대 파블로 오냐테 교수가 맡고 있다.
- 이번 서울 대회는 지난 7월 1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엑스에서 개막했으며 8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 이 가운데 재외동포 정치학자는 이태구 미국정치학회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호주 등 2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170여 명이다.
- 재외동포청은 14일 코엑스 인근 소노펠리체 컨벤션센터에서 재외 한인 정치학자들과 연구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재외동포 정치학자 초청 공식 리셉션’을 개최했다.
 - 이번 리셉션은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정치학자와 한국 정부 간 채널을 구축하고, 동포 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확장을 동시에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리셉션은 김범수 회장의 개회사, 이상덕 청장의 환영사, 파블로 오냐테 회장의 축사, 참가자를 대표해 이태구 회장(하버드대 교수)의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 이상덕 청장은 “작년 재외동포청장 취임 이후 세계 각국에서 우수하고 헌신적인 동포들을 만나며 큰 감명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는 그 연속선상에 있다” 면서 “재외동포청은 정체성(identity), 연결성(connectivity), 공동번영(mutual prosperity)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한민족 정체성 보존이 핵심 우선과제” 라고 말했다.
- 이 청장은 “재외동포 정치학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각국 한인 사회에게 기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알리는 여론 형성자(opinion leader)이자 교육자로서 차세대에게 한국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재외동포청의 설립은 2년밖에 안됐지만,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조직” 이라면서, “재외동포를 위한 한인정체성 함양과, 차세대 교육 그리고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며 “재외동포 학자들이 국제무대에서 계속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고 약속했다.
- 파블로 오냐테 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한인 정치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번 리셉션을 개최한 재외동포청에 감사하다” 라고 말했다.
- 이태구 회장은 “한국의 디아스포라 역사는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면서 “현재, 미국 내 한인들은 여전히 시민권, 의료보험 등에 있어서 여전히 취약하다” 며 “재외동포청이야말로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정부기관이다” 라고 강조했다.

- 행사 후 오찬 및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재외동포 정치학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어졌으며, 1902년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과 사랑을 음악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 ‘하와이 연가’ (감독 이진영)를 통해 동포 정체성에 대한 감수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 참가자들은 영화를 본 후 “한국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세계 속의 한국인”이라는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으며 동포 정체성과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재외동포청은 이번 리셉션을 계기로 정책 수요자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재외동포 정치학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외동포 학술 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끝.

붙임 1. 리셉션 개요 1부.

2. 행사 사진 3부. 끝.

담당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 삼 주	032-585-3154
		담당자	사무관	김 성 준	032-585-3155

□ **개 요**

- (행 사 명) 재외동포청-한국정치학회 공동 리셉션
- (일 시) 2025. 7. 14.(월) 12:30~13:45
- (장 소) 소노펠리체 컨벤션 사파이어홀(서울 강남구 소재)
- (참석대상) 약 150명
 - 제28차 세계정치학회 참석 한국계 정치학자
 - 초청 귀빈(세계정치학회장, 前 세계정치학회장 등)

□ **목 적**

- 전 세계 한국계 정치학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 참석 한국계 정치학자 인력풀 구축(재외 한인 전문 DB 구축 활용)
- 정책 수요자이자 오피니언리더인 재외동포 정치학자와의 소통 기반 마련
- 재외동포청 정책 소개 및 학술 외교 기반 구축

□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비고
12:30~12:50	등록 및 착석	사회자
12:50~12:55	한국정치학회장 개회사	한국정치학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
12:55~13:00	재외동포정창 환영사	재외동포청장
13:00~13:05	세계정치학회장 축사	세계정치학회장 (Mr. Pablo Onate)*
13:05~13:10	귀빈 축사	국회 외통위 의원
13:10~13:15	참가자 대표 인사(재외 한인 정치학자)	미국정치학회장 (이태구 하버드대 교수)**
13:15~13:45	오찬 및 네트워킹	자유롭게 교류 (‘하와이연가’ 상영)***

* 스페인 발렌시아대학교 정치학 교수(비교정치 및 의회 연구 권위자)
 ** 2025년 회장으로 선출, ‘미주한인정치연합(KAPA)’ 자문위원으로 활동
 (‘미주한인정치연합’ - 미국 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초당적 정치 참여, 한인 후보 지원을 위해 ‘20년에 출범’)
 *** 1902년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과 사랑을 음악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 영화(30분)